

■ 괴운(槐雲) 칼럼



영가 지족당 가훈(永嘉知足堂家訓) <1>

권해조(權海兆, 한국국방외교협회 고문·북아공파 36세)

얼마 전 필자는 문공부 추천도서로 김종권(金鍾權) 편저(명문당 발행: 1988년), 한국인의 가풍(嘉風) '명가(名家)의 가훈(家訓)'에 실린 52개 성씨의 가훈을 읽었다. 그 책에 안동권문의 가훈 '영가 지족당 가훈(永嘉知足堂家訓)'도 포함되어 있었다. '영가 지족당 가훈'은 무려 16개항의 정엄한 내용으로 지면관계로 간략히 줄여 2회에 걸쳐 연재한다. 지족당(知足堂)은 조선 숙종 때 학자인 휘(諱) 권양(權讓: 1628-1697)으로, 자(字)는 예경(禮卿), 호가 지족당(知足堂)이다. 추밀공파 양촌계(陽村系) 시조 후 24세로 강원도관찰사 권벽(權璧)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초루자(草樓子) 권경(權敬)이며, 아버지는 증호조판서 권전(權倬)이다.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권지박사(權知博士)를 거쳐 전적(典籍), 사예(司藝), 공조(工曹), 병조(兵曹)의 정좌랑(正佐郎)과 정언(正言), 장령(掌令), 집의(執義)를 지냈다. 외직으로 무장(茂長), 함양(咸陽), 한산(韓山) 수령을 지냈고, 당파싸움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전원생활을 하다가 70세에 별세하였다. 그는 네 아들과 함께 5부자가 대과를 하여 예조판서, 흥문관 대학학 등에 추증되자 함만(充滿)을 경계하여 65세에 영가(永嘉)에 영가(永嘉)를 남겼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부하며 학식을 닦는 일(學業)이다. 학업은 덕행(德行)의 공부를 먼저하고 문예(文藝)의 공부를 뒤에 해야 한다. 아이를 가

르칠 때는 사략(史略:역사책)을 먼저하고 소학(小學)과 가례(家禮)를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에 사기(史記), 경전(經傳)을 가르쳐라. 상수(相數: 관상보고 점치는)에 관한 학문은 좋아 하지 말고 경계하라.

(2) 가정생활에 주의할 일(居家)이다. 남자의 할 일은 효도와 공경을 먼저 하여 어른을 섬기는 도리를 하라. 다음 학업을 열심히 해서 출세로 이름을 드날려라. 다음 농사일을 부지런히 하고, 자녀를 잘 길러라. 여자는 유순으로 삼종(三從)의 의리를 다하라. 다음에 방적을 하여 늙은이와 애들 옷을 입히고 제사와 손님대접을 잘하라. 그리고 잡가책을 읽지 말고 친족끼리 말을 만들지 말고 잡기에 빠지지 말라.

(3) 상사와 제사에 대한 예절(喪祭)이다. 죽은 뒤에 염습(殮)에는 유복(儒服)을 쓰고, 소렴(小斂)에는 공복(公服)을 쓰도록 해라. 네 명절(설, 추석, 단오, 동지) 묘 제사는 무덤에서 지내고, 네 명절 외는 그때 나는 물건을 제물로 올리고, 생신행사는 하지 말라. 기제사 제물은 과일과 탕 각 5가지, 고기류 3가지 유밀과면 2가지를 마련하고 그 밖은 풍속에 따르라. 사시절 시제는 정례(情禮)라 마땅히 행해라.

(4) 묘를 쓰는 산에 관한 일(墳山)이다. 묘 자리는 평지와 마을가운데 쓰지 말라. 물기와 다섯 가지 해로움(五害)을 피하기 어렵다. 선조가 정한 산소가 크게 해로움이 없으면 그대로 계속 쓰라.

(5) 후사를 정하는데 명심할 일(繼嗣)이다. 아들이 없으면 일가에서 까지 가려서 후사를 삼고, 후사를 삼았으면 자기가 난 자식과 같아라.

(6) 형제사이의 사랑(友愛)이다. 형제란 한 몸과 같은 동기이고, 같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다. 사촌, 육촌, 팔촌도 선조 입장에서 보면 같은 자손이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형제와 친족 간의 과실은 삼가고 전과도 하지 말라.

(7) 말에 대하여 조심할 일(言語)이다. 관직에 있을 때는 마땅히 직책에 관한 일을 말하고, 집에 있을 때는 집안일만 말할 것이다. 관직에 있지 않으면서 고관들의 과실이나 조정의 득실을 말하지 말라. 부모 앞에서 다급한 말을 하지 말고, 분한 욕을 하지 말고, 벼들과는 지루하고 번잡한 말을 하지 말고 경솔한 언동을 삼가라. 부모나 임금 앞에서 모함을 하지 말고, 속이지도 말고, 망령되지 말라. 자기의 문예를 자랑하고 남의 문예를 헐뜯지 말라.

(8) 벗을 사귀는 일(朋友)이다.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과 벗을 삼고, 직업이 없는 사람과 벗을 삼지 말라. 벗을 가릴 때에는 자기 몸가짐을 바로잡는 것을 보고, 다음에 문예를 보라. 훈척(勳戚)이나 권귀(權貴)의 자녀와는 놀지 말라. 벗과 스승과 제자의 의리는 매우 중시하여 잘못하거나 단절해서는 안 된다.

생활속의 한방건강



권리와 의무

1. 일방적 실태의 권리 또는 의무
1970년대 초등학교 사회과목 시간에 국민의 4대의무인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구성요소를 외우고 시험 본 내용이 기억의 저편에 남는다. 당시의 의무를 다할 때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필자도 이를 당연스럽게 받아들였었고, 학생신분 이기에 여타 의무를 다하지 못한 나는 권리에 대한 내용에 그다지 마음을 두지 않은 듯하다.

2020년대인 오늘날에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 국회의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장관이나 사건의 당사자들을 불러 질의를 할 때에, 그들이 국민의 대표임을 내세우면서 권리를 주장하며, 진술인들의 존중받을 권리를 수시로 무시하고 성의 없이 질문하는 것을 보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오곤 한다.

국회의원이 질문을 할 때에도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질의 내용을 근거 있게 주제에 맞게 성실하게 준비하여 답변자를 폄하내지는 모독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다운 질문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질문자는 많은 자료준비와 발표연습이 진정으로 필요하다. 2023년도에 이르러는 일부의원에게서 조금은 발전된 듯한 청문회의 진행분위기가 감지되기는 하나, 의원들의 의무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회자되지 않는 듯하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교권과 학습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일부 학생들의 도가 넘는 행동에 의해서 다수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내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편으로 어떤 선생님의 행위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권리에 대한 이야기는 빈번한데, 의무에 대한 말을 듣는 것은 빈번하다.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모두가 당연히 너무 알고 있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

2. 쌍방향 경로의 권리와 의무
의무를 실천한 이후에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서열적 생각은 나이 60이 넘어서나 바뀌어, 의무와 권리는 쌍방향 경로를 지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 어떤 것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게 되었다.

권리는 권리대로 주장되고, 의무는 의무대로 실행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의무이전에 이미 주어질 절

대가치이므로, 생명체로서 존재하는 순간에 부여되는 우선권이다. 반면에 의무는 다함께 공동체로 잘 생활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존재이후에 부여되는 부담의 성격이 강하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부여받는 것이 권리라면, 의무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인격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의무가 먼저 실행된 후에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필자의 마음 한편에 서있다. 이 생각은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하고 나올 때에 반론 또는 공격이 그를 향해 일어나곤 한다.

사전적인 의미의 권리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의미한다. 그리고 의무는 사람이나 어떤 주체가 함께 존재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3. 음양의 관점에서 권리와 의무
음양의 관점에서, 권리는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는 힘으로 양(陽)의 드러내고 펼치는 속성을 지닌다. 반면에 의무는 실행해야 하는 자신의 책무로 음(陰)의 견디고 다지는 속성을 지닌다.

음양은 서로 대립하여 맞서는 과정에서 하나의 형상이나 형태를 이루게 되고, 그 상태에서 부단히 조정이나 화합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또 다른 형상이나 상태를 만들어 간다.

음이든 양이든, 한 편의 기운이 서서히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편의 기운은 포함 또는 약해지면서 일정기간 강한 기운에 동화되는 대응을 한다. 이 때 동화되었다고 해서 한쪽 기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대 속에 '스며들' 것으로, 양 속에 음이 있거나 또는 음 속에 양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더 나아가면, 불교경전의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色即是空), 공즉시색(空即是色)'의 뜻은 실체와 허상의 둘이 곧 하나라는 것인데, 이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한 몸이 관찰자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거나 보여지게 인식된다는 양자역학(量子力學, quantum theory)의 이론과도 접맥하게 된다.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양자역학의 이론을 음양이론에 적용하면, 결국 형태를 갖는 음과 파동의 양은 하나에 이른다. 이처럼 권리와 의무가 맞물려 하나인데, 사용자 또는 관찰자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권리가 커지거나 다른 이에게는 의무가 과중해지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음양이 그 각각 속성의 정도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 상당히 맞설 때에 그 조화는 이루어져, 그 자체는 아름다운 실체로 드러나서 아름답게 되고 주변에도 평안을 준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에 안정과 평안이 지속한다.

4. 성숙한 인격의 확장
권리에는 이미 의무가 담겨져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의무에는 이미 권리가 담겨있다. 단지 사용자 또는 관찰자의 시각에서 그것을 크게 쪼집어냄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이의 권리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의무를 과중하게 만들게 된다.

더 확장하여 나의 권리가 커졌거나 이익이 증대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이는 누군가에게 부당한 반대급부를 주었다. 나의 권리를 크게 주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커질 누군가의 부담을 생각하고 헤아리는 성숙한 인격체가 선진화된 공동체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부호장공파 성곡문중 송조제단기 설치 고유제 봉행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성곡문중(城谷門中: 회장 권정수) 종원 11명은 5월 28일 오전 10시 안동시 안막동 심원재사(深遠齋舍) 뒷산에서 송조제단기(崇祖祭壇記) 고유제(告有祭)를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비가 와서 산에서 고유제를 봉행하지 못하고 심원재사에서 고유제를 올렸다.

고유제에 앞서 송조제단기를 설치할 때 제단기에 묻은 흙을 물결레로 깨끗하게 씻어낸 후 잡석한 종원들이 묵념을 하기도 했다.

이 송조제단기는 높이 1.5m, 너비 1m 크기의 오석(烏石) 전면이 송조제단기를, 뒷면이 성곡문중 분계도(分系圖)를 그려 넣었다. 제단기 상층에는 기와지붕형의 옥개석(屋蓋石)을 덮고 기반(基壇) 위에는 흙을 파서 오석을 올려놓았다.

이곳에는 선조 10위의 양위(兩位) 분들이 안치되어 있다.

심원재사에서 권정수 회장이 분향(焚香) 헌작(獻酌)하고 권태욱 감사가지은 축문(祝文)을 권준대 종원이 독축(讀祝)하였다. 축문에는 성곡문중 후손들이 조상을 숭배하고 제사를 받들기 위해 심원재 뒷산에 제단을 만들어 석물을 갖추었다. 앞으로 문중이 화합하고 자손만대 운수 왕성하고 근심이 없게 하기 위해 주과포(酒果脯)를 차려놓고 엄숙히 고(告)한다



는 내용이다. 고유제가 끝나자 종원들은 음복례를 하고 나서 점심을 먹은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서울지역종친회 월례회

회원 여러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년 7월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 일시 : 2023년 7월 27일, 목요일, 19시
- ♣ 장소 : 마포구 공덕2동 제1경로당
- ◆ 연락처 :
- 회장 권승구 02-718-8437, 010-6271-8437
- 총무 권경탁 010-3796-4047

2023년 7월 1일

안동권씨 마포종친회 회장 권승구

서울산악회 제328차 정기산행 안내

서울산악회 정기산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간 엄수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23년 7월 16일(일) 10시
- ♣ 장 소 : 4호선, 과천종합청사역 1번 출구
- ♣ 산행지 : 관악산 문원폭포
- ♣ 준비물 : 도시락, 개인 필요장비
- 회 장 권영복 : 010-2456-6865
- 등반대장 권오윤 : 010-9027-6179
- 총 무 권순희 : 010-3797-1874

2023년 7월 1일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회장 권영복